

화학연구원, 바이오디젤 베트남 생산

고체촉매 이용 200톤 파일럿 완공·가동 ... 3만톤 상업 플랜트 기반마련

화학연구원이 베트남에 바이오디젤 파일럿 플랜트를 완공함으로써 상업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한국화학연구원은 12월9일 바이오디젤 고체촉매 기술을 활용한 베트남 바이오디젤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12월10일 현지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김형록 박사 연구팀은 베트남 산업화학연구소와 베트남 바이오디젤 파일럿 플랜트 설치 및 운전사업을 총괄 수행했으며, 베트남의 풍부한 저품위 바이오 오일을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저품위 바이오 오일은 현재의 상업적 바이오디젤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산가(산가 4 이상) 오일로 베트남에서만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으로 추정된다.

파일럿 플랜트 준공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성공 모델로, 앞으로 3만톤 상업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현승 원장은 “베트남과 기술 및 자원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국제협력 사업”이라며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0>